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2026. 10. 28.(수) 조간[온라인: 10. 27.(화) 15:00]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AI융합보안기술팀 임준형 팀장(전화: 061-820-3350, 전자우편: lim@kisa.or.kr) AI융합보안기술팀 나사랑 책임(전화: 061-820-3355, 전자우편: no.1.nasa@kisa.or.kr)	
참고자료	사진 있음 ■ 사진 없음 □	총 2매

한국인터넷진흥원, 선박 사이버 침해 대응 성능 시험장 첫 공개

- 국립한국해양대와 공동 시연회 개최··실제 해역에서 탐지·대응 기술 실증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함께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실증을 위한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성능 시험장(테스트 베드) 공동 시연회'를 부산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개최했다고 2026. 10. 27.(화)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2025년 4월부터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 기술 및 탐지·대응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같은 해 7월에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실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시연은 연구의 하나로 구축한 시험장과 실증선을 처음 공개하고, 실제 선박 운항 환경에서 사이버 공격 재현해 보안 기술 검증이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시험장 구축 경과보고 및 실증선 소개 ▲실증선 진수 기념행사 ▲실증 해역 운항 및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시연 등이 진행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선박 전 영역(항해, 통신, 기관)의 사이버보안 기술 검증이 가능한 전용 실증선을 구축했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실증 해역 및 계류·안전관리 등을 지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시연을 통해 실제 선박 운항 환경에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완전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등 실물(피지컬) 인공지능 분야의 사이버보안 연구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박해룡 인공지능(AI)보안기술단장은 “선박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실제 운항 환경에서 사이버보안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험장 시연을 계기로 국내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 및 탐지·대응 기술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사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